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55

디모데후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디 모 데 후 서

2 Timothy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1:8)

*μη ουν επαισχυνθης το μαρτυριον του κυριου ημων
μηδε εμε τον δεσμιον αυτου, αλλα συγκακοπαθησον
τω ευαγγελιω κατα δυναμιν θεου.*

디모데후서 차례

디모데후서 서론	〈14제〉	… 607
제 1 장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7제〉	… 613
제 2 장 전도자의 자격 및 임무	〈18제〉	… 621
제 3 장 말세에 나타날 악에 대한 예언과 성도의 고난	〈17제〉	… 630
제 4 장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	〈20제〉	… 639

디모데후서 특별 자료 차례

디모데후서 서론 〈연구 자료〉 성경의 영감(靈感)	612
제 1 장 〈연구 자료〉 무교회주의(無教會主義) 비판	620
제 2 장 〈화보 자료〉 로마의 원형 경기장(Colosseum)	629
제 3 장 〈본장의 요절〉	638
제 4 장 〈본장의 요절〉	648

디모데후서 서론

1. ㉠ 본서신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신은 본서 첫머리에 언급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다(1:12).
- (2) 그러나 19세기 유럽의 자유주의 비평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본서신이 바울의 저작임을 부인하고 있다.
- (3) 첫째, 본서신에 기록된 사건들이 사도행전의 기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디도를 남겨 둔 사실(딤후1:5)이 나오지 않으며 또한 그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 두고 떠난 것(딤후1:3)도 사도행전의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 (4) 둘째, 본서신의 문체나 어휘가 바울의 초기 저술들(데살로니가전·후서, 고린도전·후서)과 비교해 볼 때 다르다는 점이다(Harrison).
- (5) 이러한 반론에 대해 전통적으로 본서신이 바울의 저작임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6) (3)항에 대해선, 바울이 로마에 1차로 투옥되어 곧바로 처형된 것이 아니라 석방되어 몇 번 더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 기간 중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썼으며, 본서신은 바울의 마지막 투옥 기간 중(A.D.66-67)에 쓰여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는 유세비우스(Eusebius, A.D.260-339)의 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7) (4)항에 대해선, 바울의 어휘나 문체의 사용은 시간의 경과와 당시 상황과 보내는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실제로 목회 서신(3:10,11;4:6-8)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 대한 바울의 작별 인사 사이에는 많은 접촉점들이 있다고 주장한다(행20:17-38). 또한 무엇보다도 본서신의 교리적인 배경이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그들은 본서신이 바울의 저작이라고 주장한다(W.J.Lowstuter, 「아빙돈 성서 주석」).
- (8)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본서신의 저자가 의심할 나위 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2. ㉡ 본서신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신의 수신자는 당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이다(1:2).
- (2) 한편 본서신은 바울이 2차로 로마에 투옥되어 죽음을 기다리며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두번째로 보낸 편지이자 바울이 기록한 최후의 서신이다(4:6-8).
- (3)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딤후 서론 ㉠ 14를 참조하라.

3. ㉢ 본서신이 기록될 당시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떠한가?

- ㉢ (1) 본서신이 기록될 당시인 A.D.66-67년 사이에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2차로 투옥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다.
- (2) A.D.67년경 바울은 로마에서 약간 떨어진 오스티안 가도(The Ostian Way)에서 죽임을 당했다.
- (3) 그렇기 때문에 본서신은 다른 목회 서신보다도 늦게 쓰여졌으며, 수인(囚人)의 처지가 되어 죽음을 기다리는 바울의 절박한 심정이 내포되어 있는 최후의 유서와도 같은 글이라고 할 수 있다(4:6-8).

- (4) 이처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원했을 뿐 아니라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여, 자신이 수많은 회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지키고 전파해 온 귀중한 복음을 맡아서 잘 깨우치고 전파하여 후대에 전할 것을 호소력 있게 권면하고 있다.
- (5) 여기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선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애착과 사랑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복음에 대한 강한 사랑과 애착이야말로 현대와 같은 교회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어 왔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다.

4. ㉠ 본서신이 기록된 시기와 장소에 대해 설명하라.

- ㉠ (1) 바울은 두 차례에 걸쳐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첫번째로 투옥된 연대는 A.D.61-63년경이었다. 두번째로 바울이 투옥된 것은 A.D.66-67년경이었으며 A.D.67년 네로 황제에 의해 처형당했다.
- (2)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본서신에서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4:21) 자기에게 오라고 편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서신은 A.D.67년에 이전에 쓰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그러므로 본서신이 바울의 제 2차 로마 투옥 기간 중에 기록된 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서신은 A.D.66년에 쓰여진 것이라 할 수 있다.
- (4) 한편 목회 서신은 바울이 제 1차 로마 투옥에서 석방되어 여러 지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던 A.D.63-66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디모데전서는 마게도냐에서 쓰여졌다는 암시가 있다(딤후전1:3). 반면에 디도서는 쓰여진 장소에 대한 명확한 암시가 없다.
- (5) 그런데 본서신은 바울이 제 2차로 투옥되어 순교하기 직전 로마의 옥중에서 쓰여진 것이다(참조, 1:8;2:9;4:6).

5. ㉠ 다른 목회 서신들과 비교할 때 본서신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 ㉠ (1) 우리는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이 서신들이 목회자의 자질에 대한 언급과 교회의 제도와 목회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이러한 목회 서신들 중에서도 본서신은 다른 두 서신, 즉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3) 첫째, 디모데전서와 디도서가 대표적인 목회 서신인데 반해 본서신은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서신이다. 본서신에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던 디모데에 대한 권면과 격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1:13,14),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섭섭함이 게재되어 있으며(1:15-18), 복음의 사역을 성실히 수행하다가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 자신의 회고담이 담겨 있다(4:6-8).
- (4) 둘째, 다른 두 목회 서신이 비교적 교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반해 본서신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1:8)는 고독한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에 대한 권면이 강하게 부각되어져 있다.
- (5) 셋째, 디모데전서가 개인과 교회 전체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른 진리와 교리를 지키기 위하여 힘쓰라고 한데 비해 본서신은 생의 마지막에 선 대사도가 그의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를 위로하고 그의 믿음의 생활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참조, 2:3).

6. ㉠ 사도 바울이 본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서신은 후세에 전해진 바울의 서신들 중에서 최후에 기록된 글로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보내진 것이다. 바울이 본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다음의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첫째, 당대에 활동하던 거짓 교사들로부터 복음의 진리와 바른 교훈을 지키고 교회

내에 바른 질서를 세워 유지하려고 이 글을 기록했다.

- (3) 둘째, 바울의 투옥과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의기 소침해 있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어 더욱 힘을 내서 복음 전파 사역과 목회 사역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서신을 기록했다.
- (4) 셋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외로이 자신의 최후를 기다리는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 위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본서신을 기록했다(참조, 4:9-11).
- (5) 마지막으로, 추위가 엄습해 오는 감옥 속에서 드로아에 두고 온 겔옷과 책들, 양피지 문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본서신을 기록했다(참조, 4:13).

7. **㉠** 본서신의 정경성에 관해 설명하라.

- ㉠** (1) 본서신의 정경성에 대해선 근래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이견(異見) 없이 인정되어 온 바이다. 그 이유는 A.D.2세기경의 성직자들인 폴리갑(Polycarp), 저스틴(Justin Martyr), 이레니우스(Irenaeus) 등이 본서신을 정경으로 인정하였으며 인용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이단인 마르시온(Marcon)은 A.D.140년경에 저술한 그의 책 속에서 사도 바울의 10편의 서신들과 일부 내용이 삭제된 누가복음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목회 서신과 다른 나머지 신약들을 모두 부인해 버리고 말았다.
- (3) 또한 19세기에 이르러 자유주의 비평가들인 바우어(Baur), 홀츠만(Holtzman) 등이 본서신의 정경성을 부인해 버렸다.
- (4) 그러나 최초로 공인된 신약 성경인 ‘무라토리 단편’(Muratorian Canon, A.D.170-200년경)은 본서신을 포함한 목회 서신들을 정경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 (5) 뿐만 아니라 19세기 자유주의 비평가들의 비판에 대해서도 근대 신학자들인 리겐바크(Rigenbach), 쾨클러(Zöckler) 등은 본서신이 정경에 포함됨을 확정적으로 밝혔다.
- (6) 상기한 사실들과 무엇보다도 본서신 속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을 살펴볼 때 본서신의 정경성에 대해선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우리는 결론지을 수 있다(참조, 1:1,2).

8. **㉠** 본서신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라.

- ㉠** (1) 본서신은 사도 바울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보다도 더욱더 개인적인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글이다. 본서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장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넘치는 영적 은사를 간직할 것(1:1-7)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그의 충실한 동역자가 되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다(1:8-18).
- (3) 1장에 이어 2장에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2:1-13)과 함께 디모데전서에 언급되어 있듯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2:14-19). 이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2:20-26).
- (4) 3장에는 말세 인간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으며(3:1-9), 바울 자신의 믿음과 복음 증거를 예로 들어 디모데에게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권면이 나온다(3:10-17).
- (5) 그리고 바울은 4장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디모데에 대한 몇 가지 부탁을 아울러 기술하고(4:9-18), 마지막 인사와 축복으로 본서신을 끝맺고 있다.
- (6) 이처럼, 본서신은 바울이 진정으로 사랑한 디모데라는 한 개인에게 쓴 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하여 그의 생애와 인품을 통찰할 수 있다.
-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은 단순히 디모데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하여 에베소 교회의 전(全)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에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음성이다.

9. ㉠ 목회 서신이 지니고 있는 신학적 가치는 무엇인가?

- ㉠ (1) 우선 목회 서신은 다분히 구약 성경을 배경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용어의 사용에서 알 수 있는데 이 귀절은 목회 서신에 5번이나 나오지만(딤후전1:1;2:3;딤후1:3;2:10;3:4),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는 나오지 않는다.
- (2) 그리고 구원이란 우리 자신의 율법적인 선행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 목회 서신에서 명백하게 주장되고 있다(1:9;딤후3:5). 이것과 관련되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말도 언급되고 있다(딤후전1:16).
- (3) 뿐만 아니라 목회 서신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이 신약의 어떤 다른 책보다도 분명하고 힘있게 서술되어 있으며(3:16), 성경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가장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 (4) 그런데 목회 서신의 수신자인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과의 오랜 교제를 통해 이미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많은 것을 바울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목회 서신에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훈적인 내용은 비교적 적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에 대한 기록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목회 서신은 신학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실제적이며, 교리를 설명하거나 해석하기 보다는 기존의 교리를 지키는 것에 더 역점을 둔 바울의 서신들이라고 할 수 있다.

10. ㉠ 목회 서신에 나타나 있는 당시 교회의 특별한 문제란 무엇인가?

- ㉠ (1) 바울은 대부분의 서신에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바른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의 꾀방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다. 그런데 목회 서신에서는 특별히 유대교나 영지주의에 대한 염려와 경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2) 첫째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착념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다(딤후전1:4). 이들은 유대교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다(참조, 딤후1:14).
- (3) 둘째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자들로서(딤후전4:3), 이들은 영지주의와 유대교를 혼합시킨 사상을 소유한 자들이다. 특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사상은 모든 물질은 악하다는 영지주의 사상과 일치하며 잘못된 금욕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 (4)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어떤 사람을 과부의 명단에 올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로 인해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마련하여 과부의 명단에 오를 수 있는 자격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참조, 딤후전5:3-16).
- (5)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거짓 교사들은 기독교 선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교회의 권위와 정통성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여 진리의 터전 위에 자신과 교회를 굳게 세우도록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11. ㉠ 본서신의 주요 대지와 주요 성경 귀절을 장별로 서술하라.

- ㉠ (1) 1장 : 지키라
 - ①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1:6)
 - ② '부끄러워 말고'(1:8)
 - ③ '바른말을...지키고'(1:13)
 - ④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1:14)
- (2) 2장 : 가르치라
 - ①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2:2)

- ②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2:3)
- ③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2:7)
- ④ '주의 증은...가르치기를 잘하며'(2:24)

(3) 3장 : 거하라

- ①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3:1)
- ②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3:10)
- ③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3:14)

(4) 4장 : 전파하라

- ① '엄히 명하노니'(4:1)
- ② '말씀을 전파하라'(4:2)
- ③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4:5)

12. ㉠ 본서신의 문장 구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본서신은 교훈-찬양-교훈, 즉 A-B-A의 패턴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
- (2)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서신은 신문-시-신문의 형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즉 본서신 속에는 엄숙한 교훈 사이에 송영이나 찬양을 삽입하는 문장 구조가 여러 번 나타난다.
- (4) 그리고 각 단락은 문안과 감사로 시작해서 개인적인 당부와 기도로 끝나며, 본서신 전체의 구성은 이 서신의 중앙 부분에 있는 중심되는 주제(2:11-13)에 모든 것이 집중되도록 배치되어 있다.

13. ㉠ 본서신의 대지(大旨)를 구분하라.

- ㉠ (1) 인사와 서론/1:1-18
- ① 바울의 문안/1:1,2
 - ② 디모데에 대한 감사/1:3-7
 - ㄱ. 디모데의 기업/1:3-5
 - 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은사/1:6,7
 - ③ 그리스도의 군사된 소명/1:8-18
 - ㄱ. 디모데에 대한 간절한 권면/1:8
 - ㄴ. 바울의 증거/1:9-12
 - ㄷ. 바울의 권면/1:13,14
 - ㄹ. 바울이 버림받음/1:15
 - ㅁ. 바울을 도운 사람/1:16-18
- (2) 복음은 성도에게 맡겨진 위탁물/2:1-3:17
- ① 그리스도인의 상징/2:1-7
 - ㄱ. 머리말/2:1,2
 - ㄴ. 군사/2:3,4
 - ㄷ. 경기하는 자/2:5
 - ㄹ. 농부/2:6,7
 - ② 고난과 영광/2:8-13
 - ③ 교회에서 상반되는 것/2:14-26
 - ㄱ. 진실한 교사와 거짓 교사/2:14-19

- ㄴ.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2:20-21
- ㄷ. 온유한 자와 다투는 자/2:22-26
- ④ 말세의 특징/3:1-9
 - ㄱ. 돈과 쾌락을 사랑함/3:1-5
 - ㄴ. 타락한 생각과 생활/3:6-9
- ⑤ 핍박과 굳건한 믿음/3:10-17
 - ㄱ.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3:10-13
 - ㄴ. 성경의 권위 및 타당성/3:14-17
- (3) 결론과 작별 인사/4:1-22
 - ① 그리스도 군사의 직무/4:1-5
 - ② 그리스도 군사에 대한 위로/4:6-18
 - ㄱ. 그리스도 안에서의 보람된 최후/4:6-7
 - ㄴ. 성도들을 위해 예비된 영생/4:8
 - ㄷ. 친구들에 대한 언급/4:9-18
 - ③ 마지막 인사/4:19-22

14. **㉠** 본서신의 요절은 무엇인가?

- ㉠**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1:8).

연구자료

성경의 영감(靈感). 본서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3:16)임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성경의 영감설을 뒷받침해 주는 가장 직접적인 귀절이다. 그러면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개개의 성경 기자(記者)들의 마음을 조명(照明)하시어 그들이 전혀 죄로 오염된 인간의 성품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하셨음을 의미한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특별히 '유기적(organic) 영감'이라 한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완전히 주장하셨다고 해서 성경 기자 개개인의 성격과 문체, 용어, 재능 등을 배제하신 채 그들을 기계적으로 사용하셨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각 권마다에는 개개 성경 기자의 특유한 문체, 용어 등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들이 사용한 단어 하나에까지 조명하시어 자신이 계시하신 말씀이 정확 무오하게 기록되도록 하셨다. 이를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는 '촉자적(verbal) 영감'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조명과 간섭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모두 미치고 있음을 믿는데 이를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완전(total) 영감'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처럼 성경은 유기적, 촉자적, 완전 영감된 것이다.

제 1 장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단락구분 1-2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문안하다 / 3-5 디모데의 믿음을 생각하며 감사하다 / 6-8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 9-12 사도 바울의 간증 및 복음에 대한 확신 / 13-14 바울이 디모데에게 재차 복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다 / 15 바울을 버린 자들 / 16-18 오네시보로의 헌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다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3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6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온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8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11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12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13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14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5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중에 부질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16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패케 하고 나의 사술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17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18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의 중심이 되는 주제는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다(8절).
- (2) 계속해서 본장에는 바울의 문안 인사로부터 시작되어, 초반부에는 디모데와 그의 조상들의 신앙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언급되고 있다.
- (3)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으며, 구원의 근거에 관한 문제를 서술하고 있다.
- (4) 곧 이어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바울이 어려울 때 도와 준 오네시보로에 대해 감사하는 언급을 함으로 본장을 맺고 있다.
- (5)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지키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꺼

위하는 사도 바울의 의연한 자세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배울 수 있다.

2. ㉠ 바울의 사도된 근거는 무엇인가? (1절)

- ㉠ (1) 본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사도된 근거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첫째,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란 말은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첫 소개말에 공동적으로 나오는 표현으로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러한 그의 사도된 근거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갈1:1)이라는 말 속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 (4) 둘째, 바울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의 ‘생명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를 의미한다.
- (5)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생명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바울을 사도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말이다.
- (6) 상기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직분의 부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전적으로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골1:10; 살전2:12).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 내에서의 자신의 직능이 어떤 것이든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3. ㉠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문안한 내용은 무엇인가? (2절)

- ㉠ (1) 본서신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로 인사를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의 젊은 동역자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따뜻한 애정을 볼 수 있다.
- (2) 또 본서신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디모데에게 함께하기를 구하고 있다(참조, 딤후1:2).
- (3) 그런데 바울의 다른 열 편의 서신에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단어만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디모데전서와 본서신에서는 이에 덧붙여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참조, 롬1:7; 고전1:3; 고후1:2; 갈1:3; 엡1:2; 빌1:2; 골1:2; 살전1:1; 살후1:2; 딤후1:2; 딤후1:4; 몬1:3).
- (4)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스스로를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엡2:4).
- (5)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던 병약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구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다.
- (6)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서로 문안할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참조, 출18:7; 롬16:16).

4. ㉠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3-5절)

- ㉠ (1) 바울은 자기의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즉 자신의 종교적인 기업을 크게 감사하고 있다(참조, 행22:3; 24:14).
- (2)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기독교적 신앙이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 때부터 섬겨 오던 신앙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참조, 롬11:13-24).
- (3)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신앙과 디모데의 3대에 걸친 신앙을 비교함으로써, 디모데의 기독교에 대한 충성은 곧 그의 가정에 대한 충성이며 바울에 대한 충성인 동시에

진실한 전통에 대한 충성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 (4) 둘째로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디모데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참조, 엡1:15).
- (5) 그런데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의미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이 소유한 경건한 유대교적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그들의 경건함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가능케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6) 상기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 교육을 통한 신앙의 계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디모데처럼, 부모들의 아름다운 모범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승되는 거짓 없는 신앙이야말로 지금과 같은 타락하고 부도덕한 우리 나라의 현실 속에서 아주 절실히 요청되어지고 있다(참조, 3:14-17).

5. ㉠ 바울이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원한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A) (1) 바울이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원한 데에는 두 가지 분명한 동기가 있다. 하나는 내적 동기요, 다른 하나는 외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다.
- (2) 바울은 그 내적 동기에 대하여 '네 눈물을 생각하여'라는 말로 진술하고 있다. 즉 디모데의 애정어린 눈물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은 더욱더 디모데에게 끌려 그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 것이다.
- (3) 한편 디모데가 눈물을 흘린 때에 관해 여러 가지 사실들이 제시될 수 있으나 가장 납득할 만한 경우는 바울과의 이별 때로 봄이 옳을 것이다(참조, 행20:37).
- (4) 또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한 외적인 동기는 자신의 '기쁨을 가득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 (5) 본서신이 기록될 당시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갇혀 처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던 죄수의 몸이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태껏 자기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버리고 이제 누가만 같이 있는 외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참조, 4:9-11).
- (6) 이러한 상태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애정어린 눈물을 생각했고, 그를 만나 봄으로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 (7) 여기서 우리는 참된 눈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참된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내 이웃의 아픔에 눈물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히5:7).

6. ㉠ 로이스와 유니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라(5절).

- (A) (1)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에 대해선 성경에 자세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유대인으로서 그녀의 딸인 유니게가 헬라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봐서 최소한 유니게가 결혼하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했으리라는 추측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 신자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2)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녀의 아버지도 유대인이라고 생각된다.
- (3) 한편 유니게의 남편은 헬라인인데 이 사실을 통해 볼 때 유니게도 결혼하기 전에 적어도 기독교로 개종했을 가능성이 높다(참조, 행16:1).
- (4) 이러한 그녀는 아들인 디모데를 경건한 신앙으로 교육시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의 동역자로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열심 있고 경건한 신앙인이었다(참조, 3:14).
- (5) 여기서 우리는 믿는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달을 수 있다. 믿음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학벌이나 지위 등을 강조하기 보다는

진실한 믿음을 상속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엡6:4).

7. **㉠**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직면하고 있던 어려움은 무엇인가? (6-8절)

- ㉠** (1) 디모데는 우선 나이가 어린 목회자였고, 육체적으로 병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참조, 딤후4:12;5:23).
- (2) 그리고 그는 선천적으로 성격이 소심했고 겁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투옥된 후, 일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참조, 78절; 고전16:10).
- (3) 바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참조, 딤후4:6).
- (4) 또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아주 지독하고 악랄하게 복음의 바른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데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참조, 딤후1:3-7;4:6,7;6:3-10).
- (5) 그러나 성도들은 복음 전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참조, 마28:18-20) 또한 성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그 일은 장래 우리에게 영광과 기업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참조, 8절; 고후4:17).

8. **㉠**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에 해당하는 헬리어 <프뉴마 데일리아스>는 오히려 ‘겁 많은 영’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 (2) 따라서 믿는 성도들은 ‘겁 많은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은 두렵게 하는 영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영이며 승리케 하는 영이신 것이다(참조, 요14:16).
- (3)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 (4) 여기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불가항력적인 힘으로서 복음 전파를 위한 추진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힘이다(참조, 행8:13).
- (5) 그리고 사랑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도가 생활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취해야 할 마음가짐과 기본 자세를 보여 주는 말이다(참조, 요일4:10).
- (6) 또 근신하는 마음은 자신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남을 온전케 하는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성도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 권세나 그밖의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 주시는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요16:33; 고후2:14; 요일5:4).

9. **㉠**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끄러워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8절)

- ㉠** (1) 첫째, 바울은 ‘우리 주의 증거’를 부끄러워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 증거’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 십자가 죽음, 부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전체를 의미한다.
- (2)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면 주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역시 그분도 우리를 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실 것이다(참조, 막8:38).
- (3) 둘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옥에 갇힌 바울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다. 여기서 복음을 위해 갇힌 바 된 자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믿음과 은혜가 쇠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육체에 채우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참조, 골1:24).

- (5) 세째,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다(참조, 고후11:24-27).
- (6) 그렇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고 자랑하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2:10-12; 롬8:17).
- (7) 따라서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 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되기 때문이다(참조, 골3:1-4).

10. ◉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9절)

- (A) (1)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본질에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가 두 가지 나오는데 그것은 '구원'과 '거룩하신 부르심'이다.
- (2) 그런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만인을 위해 준비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거룩하신 부르심'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 개인적으로 부르신다는 의미를 갖는다.
- (3)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미리부터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단번에 이루셨다. 그리고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것이다(참조, 엡1:3-9). 이 부르심은 다 시금 그를 버리지 않으시는 확실하고 완전한 부르심이다.
- (4)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거룩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기오스>는 '구별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 (5)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다.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살전4:7).

11. ◉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9절)

- (A) (1)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이다.
- (2) 이에 관한 내용은 바울의 서신들,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거듭 강조되어 있는 사상이다(참조, 롬1:17; 3:20-24; 10:5-13; 11:6; 갈2:16; 3:6-14; 6:14, 15; 엡2:9; 딛3:5).
- (3) 즉 구원은 우리의 율법적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의 지혜롭고 확고한 계획에 근거하는 것이다(참조, 롬8:28; 엡1:11).
- (4) 다음으로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은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에 의한 구원의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배제해 버린다.
- (5) 첫째,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어떤 것이지 우리가 노력함으로 획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참조, 엡2:8, 9).
- (6) 둘째, 은혜는 우리의 행위에 선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그 은혜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딤후1:2).
- (7) 위에서 우리는 구원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 전에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이 큰 사랑의 섭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참조, 롬11:6; 갈3:6).

12. ◉ 10절에 나타난 복음의 역할은 무엇인가?

- Ⓐ (1) 우선 복음은 인간 위에 군림하는 사망을 폐하는 역할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셨다(참조, 살후2:8).
- (2)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의 결과로 성도들에게 영원한 사망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육신적인 죽음은 성도들에게 내세의 영생을 보장해 주는 유익한 것으로 변해 버렸다(참조, 요11:26; 빌3:7-14).
- (3) 또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 준다. 여기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두 개념은 같은 뜻으로 '썩지 않을 생명'을 의미하는 말이다.
- (4)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썩지 않는 생명을 나타내 보여 주셨으며, 또한 그분은 이 생명을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기입으로 물려주셨다(참조, 요11:25; 롬6:4,5).
- (5)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덧입히실 것이다(참조, 고전15:42).
- (6) 그러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성도들의 육체도 여전히 부패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며, 완전한 의미의 구원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참조, 벧후3:13; 계21:1).
- (7)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될 그리스도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1:9; 딤후1:17).

13. ⓐ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첫째 이유는 무엇인가? (11, 12절)

- Ⓐ (1) 바울이 사도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첫째 이유는 '자신이 의뢰한 자'를 안다는 것이다.
- (2) 여기서 '나의 의뢰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 페피스투카>를 직역해 보면 '내가 믿은 자'가 된다(참조, 롬1:16).
- (3) 따라서 이 말은 '내가 믿은 자를 내가 알고'라고 번역될 수 있으며 전체적인 의미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가 된다.
- (4) 이 말대로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 처해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크신 사랑과 절대적인 신실성에 대해 변함없이 확신하고 있었다.
- (5)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변함없는 신뢰야말로 바울의 생동감 넘치는 삶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새삼 느낄 수 있다(참조, 요일1:9).
- (6) 그러므로 불확실성과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각 개인을 지배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울처럼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견지하여 항상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요6:69; 17:3-8; 롬1:14).

14. ⓐ '나의 의탁한... 확신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2절)

- Ⓐ (1) 여기서 '나의 의탁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텐 파라테켄 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의 맡긴 것'이 된다.
- (2) 그런데 '나의 맡긴 것'이라는 말도 '내가 주께 맡긴 것'(Bengel, Calvin, Alford)이라는 말과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Vincent, Heinrichs)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
- (3) 이것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Lock).
- (4) 따라서 '내가 주께 의탁한 것'이라는 말은 '생명의 구원'을 의미하고(Calvin, Huther), '주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말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의미한다고(Fairbairn, De Wette) 할 수 있다.

- (5) 결국 이 말은 믿는 자의 생명의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께서 재림하실 그날에는 기필코 완성하실 것이라는 바울의 믿음을 고백한 말로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번째 이유에 해당한다.
- (6) 그러므로 바울이 주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소망과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롬1:16;5:5;벧전4:16).
- (7)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고히 할 수 있는 자야말로 담대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참조, 행27:14-26).

15. **㉠**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말한 것은 무엇인가? (13, 14절)

- ㉠** (1) 바울이 첫번째로 지키라고 한 것은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들은 '바른말'이다.
- (2) 여기서 '바른말'은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으로(4:3;딤후1:10), 이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반박하여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삶을 가능케 하는 복음의 진리를 가리킨다.
- (3)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바른 진리와 교훈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4) 바울이 두번째로 디모데에게 지키라고 한 것은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다.
- (5) 여기서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복음을 가리킨다.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이다(참조, 롬1:16;고전4:14).
- (6) 그러나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지킬 수 없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비로소 지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참조, 요14:26;행1:8).
- (7)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바른 교훈을 지키고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8:11;딤후6:20).

16. **㉠**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성도들로부터 어떤 일을 당했는가? (15절)

- ㉠** (1) 본절에 기록된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와는 다른 곳이다. 바울 당시의 아시아는 지금의 에게 해 연안의 서남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로마 제국의 한 도(道)를 의미했다.
- (2)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아시아 지역에 많이 다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에베소에만 3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행20:31) 아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 (3)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배반하고 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물론 이 말은 아시아의 모든 성도들이 다 배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 (4) 오히려 아시아의 성도들 중 여러 사람이 바울을 버린 데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5) 특히 부절로와 허모게네는 바울을 서운하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선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두 사람에게 대해서는 성경에 더 이상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개인적인 신분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 (6) 그러나 바울이 이처럼 고난받는 가운데 비로소 참친구되신 예수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고난을 통해서만 참친구되신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신8:5;살전1:6).

17. **㉠**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16-18절).

- ㉠** (1) '오네시보로'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을 가져오는 자'이다. 그는 에베소 사람으로 바울의 전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에베소에서 바울을 많이 도와 주었으며 바울이

- 로마 감옥에 투옥된 후에도 자주 방문하여 바울을 위로하고 즐겁게 하였다(참조, 몬1장).
- (2) 그는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처신했음을 볼 수 있다.
 - (3)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긍휼을 내려 주시길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 (4)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항상 '오네시보로의 집에'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4:19)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오네시보로가 이미 죽어 고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Bengel, Alford, White).
 - (5) 아 물론 믿는 성도들은 오네시보로처럼 사랑과 선행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의 가슴속에 기억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행10:31; 고전11:2).

연구자료

무교회주의(無教會主義) 비판. '무교회주의'란 목사, 장로, 집사 또는 교사(11절;엡4:11) 등과 같은 교회 조직이나 교회의 예전, 신조 또는 예배당과 같은 외형적인 교회 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하나님과 인간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신앙만을 중요시 여기는 주의(主義)이다. 이 같은 무교회주의는 기존 교회의 타락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신앙 쇄신 운동인데 그 기원은 A. D. 3, 4세기경의 수도원 운동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형태의 무교회주의는 1830년을 기점으로 영국에서 일어난 '플리머드 형제단'(Plymouth Brethren) 운동과 일본의 우찌무라간조(内村鑑三, 1861-1930)에 의한 무교회주의 운동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교회 본위의 기존 교회 현실에 반대하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의 개인 생활을 극구 주장하는데 그 근본 사상은 '조직 교회란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성경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성도들의 연합체로서 비록 일시적인 부패 현상이 발생할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예수 재림시까지 주께로부터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참조, 마16:18, 19). 뿐만 아니라 사도와 같은 교회의 조직이나 성찬 예식과 같은 교회의 예전도 예수께서 직접 세우신 것으로서 후대에까지 보존되어야 할 것을 명함 받은 것이다(마10:1-16; 눅22:19).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교회주의자들은 이 같은 교회 제도들이 형식적인 것으로 흐를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니 이는 잘못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우리 나라에도 무교회주의 운동을 실천한 자가 있었는데 곧 우찌무라간조의 제자였던 김 교신(金敎臣, 1901-1945)이다. 그리고 그와 맥을 같이하는 자로서 아직까지도 생존해 있는 분으로는 함 석헌(翁)을 들 수 있다.

제 2 장 전도자의 자격 및 임무

단락구분 1-2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탁하다 / 3-7 그리스도의 군사로 고난을 견디라 / 8-13 주와 함께 동거 동락하라 / 14-19 거짓되이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경고 / 20-21 자신을 정결케 하여 쓰임 받는 종이 되라 / 22-23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다 / 24-26 주의 종의 자격과 자세

1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4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엄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5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6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7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충명을 주시리라

8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가 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9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10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11 미쁘다 이 말이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12 참으로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항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14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15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6 명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17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중에 후메나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19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렸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20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짚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22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23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앎이라

24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 저희로 깨어 마귀의 음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서 바울은 아시아 성도들의 배반과 오네시보로의 충성을 이야기한 전장의 후반부에 이어, 이제는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성도 중 신실한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다(12절).

- (2) 또한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군사, 경기하는 자, 곡식을 기는 농부 등의 비유를 통해 교훈해 주고 있다(3-7절).
- (3) 아울러 그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8-13절).
- (4) 이어서 그는 듣는 자를 울무에 빠지게 만드는 말다툼을 피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이단들로부터 떠나 진리 안에 거할 뿐 아니라 자신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다(14-21절).
- (5)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성도들을 잘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22-26절).
- (6)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라면 누구나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생명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참조, 4:2; 마 24:14).

2. ㉠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 (1, 2절)

- ㉠ (1) 첫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당부하고 있다.
- (2) 디모데는 믿음이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유약한 면이 많았다(참조, 딤후 5:23).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좀더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강조하였다(참조, 1:6-8; 4:17; 행 9:22; 롬 4:20; 엡 6:10; 빌 4:13; 딤후 1:12).
- (3)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이러한 일이 불가능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만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 여기서 '주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부여하신 '은사'를 의미한다(참조, 1:6).
- (4)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지키고 가꾸어 나갈 때 비로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 (5) 둘째, 바울은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다.
- (6) 여기서 '내게 들은 바'는 바른 교훈, 즉 복음을 의미하고(참조, 딤후 6:20) '충성된 사람'은 복음과 진리에 대해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말로나 행위로 타인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참조, 고전 4:12; 딤후 3:2).
- (7) 따라서 이 말은 복음의 바른 진리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는 예수께서 부탁하신 명령이기도 하다(참조, 마 28:20).
- (8) 상기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복음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복음에 충성되고 사람들에게 신실한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고전 7:32-34).

3. ㉠ 바울은 복음 전도자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3-6절)

- ㉠ (1) 바울은 복음 전도자를 '군사'와 '경기하는 자'와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다.
- (2) 여기서 '군사'는 자신을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며 '경기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다. 또한 농부는 땅을 흘려 수고해야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 (3)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려 할 때 고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 전력으로 싸우고, 법대로 경기하며, 힘껏 일할 경우,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빌 3:12-14; 히 12:1-3).

4. ㉠ 성도 혹은 복음 전도자를 군사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인가? (3, 4절)

- ㉠ (1) 성경에는 복음 전도자를 '군사'로 비유한 곳이 많이 있는데 군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참조, 고전9:7;엡6:10-17;골2:15).

- (2) 첫째, 군사들은 어떠한 고난도 견디어 내야만 한다. 군인들이 전쟁에 임해서 겁을 먹고 물러설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 처해서도 기꺼이 인내하고 승리해야만 한다(참조, 고후10:3-5).
- (3) 둘째, 군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다. 즉 군인들은 자기 직무에 전심 전력해야만 한다. 그런데 군사로 다니는 사람이 자기의 사적인 이해 관계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것에 뒤엎히게 된다면 군인으로서 그에게 부여된 임무에 전심 전력할 수가 없게 된다.
- (4) 따라서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름 받은 목회자들은 개인의 사생활에 얽매어서는 안 되며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과 능력, 삶 전체를 바쳐야 한다(참조, 마6:33).
- (5) 셋째, 군사들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 군인의 유일한 목표가 자신을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들도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거룩한 열정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참조, 빌3:8).
- (6)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된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해야만 한다(참조, 고전7:32-34;요일3:22).

5. Q 성도를 '경기하는 자'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A** (1)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 복음을 위하여 전심 전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나 전심 전력을 다한다고 모든 것이 다 잘되는 것은 아니다.
- (2) 바울은 종종 성도들의 삶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경기하는 자의 최종적인 목표는 승리하는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다(참조, 고전9:24-27;빌3:12-14;히12:1-3).
- (3) 만약에 선수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일등을 해도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쓰지 못한다. 이처럼 선수가 법대로 경기해야만 승리자가 될 수 있듯이 복음 전도자들에게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참조, 벰전5:4).
- (4) 그러므로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지켜야 할 법칙들, 예를 들면 진리를 떠나지 않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과 온유의 정신으로 징계하는 것 등을 준수하여 의의 면류관(딤후4:8),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살전2:19;약1:12;계2:10).

6. Q 복음 전도자를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A** (1) 바울이 복음 전도자를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
- (2) 첫째 이유는 풍성한 수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농부처럼 복음의 결실을 위해 힘껏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참조, 잠20:4;24:30,31).
- (3) 복음은 말로만 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의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수확의 가을을 소망하여 농부가 애써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이웃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고전3:6-8).
- (5) 둘째는 수확을 위해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차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전도자는 교회로부터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고전9:10-14).
- (6) 또한 복음 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의 믿음이 강화되고, 소망이 분명해지며, 사랑이 깊어지는 성숙의 체험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참조, 단12:3;눅15:10;

롬1:13;약5:19,20).

- (7) 특별히 (5)는 복음 전도자에게 자신의 생계에 구애됨이 없이 전심으로 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 (8)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누(累)를 끼치지 않으려고 천막을 손수 만들어 팔면서 전도를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스도께로부터 샀군 목자라는 책망을 받지 않도록 경성(警醒)해야 한다(참조, 요10:11-13).

7. **㉠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를 기억하라고 했는가? (8절)**

- ㉠** (1)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다.
- (2)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본서신의 다른 곳에서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고 있음에 반해 여기서만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참조, 1:12,9, 13;2:1,3,10;3:12,15;4:1).
- (3) 그 까닭은 바울이 디모데의 주의(注意)를 무엇보다도 먼저,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에게로 돌리려 했기 때문이다(참조, 갈3:13;4:4,5).
- (4) 또한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정 되었다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강조하려고 했다(참조, 행2:36;빌2:5-11).
- (5) 한편 여기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이라는 귀절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사역을 담당하신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 (6)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은 유대인의 신앙의 핵심적 내용이며 소망이었다. 여기서 '다윗의 씨'는 그리스도께서 혈통적으로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참조, 마22:41-46).
- (7)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부활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증거가 된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 하시었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참조, 마28:18;고전15:20-25).
- (8)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하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히2:9;계22:1-5).

8. **㉠ 바울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 (1) 바울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복음'이라고 한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
- (2) 첫째, 바울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에 의해 그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다(참조, 갈1:2).
- (3) 둘째, 바울이 본서신에서도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복음의 반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임명받았기 때문이다(참조, 1:11).
- (4) 셋째, 비록 감옥에 투옥되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는 아직도 온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에 처해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진리를 고수하는 사도 바울의 불굴의 신앙을 배울 수 있으며, 동시에 참된 신앙은 개인의 삶을 보람과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요13:15;고전4:16;벧전2:21).

9. **㉠ 바울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한 이유는 무엇인가? (9, 10절)**

- ㉠** (1) 바울은 동족들의 모함으로 인해 두 차례나 치욕스러운 옥살이를 해야만 했고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길목마다에 죽음의 그림자가 늘 드리워져 있었다(참조, 행28:30-32;빌1:13).
- (2) 그러나 이러한 고난과 치욕 속에서도 그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 (3) 첫째,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리게 될 영광의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 (4) 즉 비록 이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복음이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무한한 영광을 가져다 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롬8:18; 고후1:5).
- (5) 둘째, 비록 자신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만방에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다.
- (6) 즉 사람들이 성도를 핍박하고 투옥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복음은 가둘 수 없으며 그 복음은 끝내 승리하고자 말 것이라는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 (7) 셋째, 바울이 옥중 생활의 모든 고난과 치욕을 참아 내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격려하고 믿음을 지키게 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었다.
- (8) 여기서 '택하신 자'(헬, 투스 엑클렉투스)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울 당시의 성도들과,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한다(Lock).
- (9) 따라서 우리들은 다른 성도들을 위한 고난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됨을 기억하고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8:17; 히11:25).

10. ㉠ 바울이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1-13절)

- ㉠ (1) '미쁘다 이 말이여'는 뒤에 나오는 4개의 서로 대조되는 귀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11-13절 말씀은 그 당시 교회에서 불리던 찬송의 하나였던 것 같다(Paulus, White).
- (2) 여기서 '미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투오>는 '믿음'과 같은 말로 '신실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3) 한편 처음의 두 대조되는 귀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신앙을 나타내는 반면, 나중의 두 귀절은 성도의 불충성에서 비롯된 소극적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참조, 롬6:8; 8:17; 딤후1:15).
- (4) 이 중 첫째,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라는 말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롬6:8; 갈2:20).
- (5) 둘째,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 내는 성도들은 내세에서 주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후사가 된다는 의미이다(참조, 마24:13; 행14:22; 살전1:5).
- (6) 셋째,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는 말은 절대 불변의 신앙 고백이 결여된 자들, 즉 상황에 따라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를 가리키는데(참조, 마10:33) 이런 자들은 최후 심판 때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벧후2:1; 유1:4).
- (7) 넷째,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함 미쁘시니'라는 말은 인간은 때로 신실하지 못하여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떠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며 믿는 자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롬3:4; 엡1:1; 요일1:9).
- (8) 따라서 본귀절들은 하나의 중심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겠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충성하여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굽히지 않고 신실하게 살면 상을 받게 되지만 불충성할 땐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11. ㉠ '너는...기억하게 하여' 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4절)

- ㉠ (1) 본귀절과 비슷한 권면이 목회 서신인 디도서에도 나오고 있다(딤후3:1).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열심을 내고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

- (2) 본절의 ‘저희’는 2절에 나오는 충성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 (3) 또 본절의 ‘이 일들’에서 ‘이 일’은 앞의 전문단(1-13절)을 가리키며 보다 직접적으로는 8-13절을 가리킨다.

12. ㉠ 바울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14절)

- ㉠ (1) 바울이 말다툼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말다툼은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다.
- (2) 여기서의 말다툼은 ‘끝없는 신화와 족보’(딤후전1:34),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딤후전4:7) 등을 말하는 것으로 당시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이단들의 가르침과 변론을 의미한다(참조, 딤후전6:3-10).
- (3) 특히 당시 디모데가 시무하던 에베소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다(참조, 고전15:12; 갈2:20).
- (4)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을 구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망하게 만들고 진리를 거부하는 말다툼을 피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 (5) 이제 우리 성도들도 교회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무익한 변론과 잘못된 권위주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몸소 사랑과 정의를 실천함으로 타인의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약1:26; 요일3:18).

13. ㉠ ‘참다운 일군’은 어떠한 자를 가리키는가? (15절)

- ㉠ (1) 첫째, 참다운 일군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分辨)하는 자이다. 또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 주에 관한 증거’(1:8), ‘복음’(엡1:13), ‘하나님의 말씀’(9절)을 의미하며 이단에 대한 정통 신앙을 뜻한다.
- (2) 여기서 ‘옳게 분별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 <오르도토메오>는 ‘바르게 자르다’ 또는 ‘바로 해석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로 성경의 가르침을 변질시키지 않으며 진리의 진위(眞僞)를 잘 분별한다는 의미이다.
- (3) 둘째, 참다운 일군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일군으로 인정받는 자이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일군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결한 사람이었다(참조, 1:8-16; 행24:16; 고전11:1; 빌1:20).
- (4) 셋째, 참다운 일군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이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짐승은 흠 없고 정결한 것이어야 했다(참조, 말1:6-14).
- (5)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참다운 일군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는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며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참조, 고후10:18).
- (6)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려 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14:18).

14. ㉠ 후메내오와 빌레도 같은 이단들이 범한 오류는 무엇인가? (16-18절)

- ㉠ (1) 후메내오와 빌레도는 에베소 지역의 이단 교사들로, 이들은 헛된 변론을 좋아하며 자신들의 엉터리 논리로 전개한 말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다(참조, 딤후전1:19-20).
- (2) 즉 후메내오와 빌레도는 진리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참된 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 중의 한 부류였다(참조, 딤후전1:6; 6:21).
- (3) 이들의 근본적인 오류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여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들은 영적 부활, 즉 죄와 허물로부터의 영적 구원은 인정하나 육체의 실제적인 부활은 부인해 버렸다. 이것은 결국 불완전한 부활을 뜻한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이라 할 수 없다.

- (4) 이들의 육체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견해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은 무조건 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간의 몸은 악하므로 몸의 부활은 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참조, 딤후4:3).
- (5) 그리고 더욱더 나쁜 것은 후메나오와 알렉산더 같은 이단들이 자신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 점이다. 그들은 출교당하기 전까지 교회의 회원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 있었다(참조, 딤후1:20).
- (6) 또한 영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죄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였으니 그들은 더욱더 불경건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진짜 복음까지도 훼방하고 조소하였다(참조, 딤후1:20).
- (7) 이러한 이단들의 거짓된 교훈은 독한 창질처럼 전염성이 강하여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만들었다(참조, 요2:15).
- (8) 한편 오늘날에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변질시키려는 이단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 성도들은 이 점을 기억하여 진리와 복음 및 신앙을 수호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11:13-15; 벧후2:1).

15. ㉠ ‘그러나 하나님의… 아신다 하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9절)

- ㉠ (1) 본절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의미하는 것은 물론 기독교와 그 기본 교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예수께 대한 참된 고백으로 인해 설립된 ‘교회’(참조, 마16:16)로 봄이 타당하다(참조, 딤후3:15).
- (2) 즉 비록 악이 만연해 있고 이단들의 주장으로 여러 부분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으나 결국 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으로 항상 서 있음을 뜻한다.
- (3) 한편 ‘인침에 있어’에서 ‘인침’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프라기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로 인해 얻어진 소유물 또는 변할 수 없는 성령의 인치심을 뜻한다(참조, 엡1:13; 4:30).
- (4) 이 ‘인침’의 대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모든 인격들이다(참조, 민16:5).
- (5)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에서 ‘아신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그노>는 단순한 지적 자각이 아니라 전인격으로서의 이해를 의미한다. 이것은 남녀 사이의 성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될 정도로 그 지식의 깊이와 넓이를 폭넓게 한 이해를 뜻한다(참조, 창4:1; 마1:25).
-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과 전인격으로써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며 선한 목자처럼 그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참조, 요10:1-5).
- (7) 결국 전체적으로 본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서는 참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인치심으로 당신의 자녀로 확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아시고 그들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다(참조, 눅1:79; 요16:13; 롬2:4; 계7:17).

16. ㉠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일군(그릇)은 어떠한 자를 가리키는가? (20, 21절)

- ㉠ (1) 첫째,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일군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되는 자들이다.
- (2) 여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한 것들로부터 떠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고전5:7).
- (3) 또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 제사 시대 때 드러졌던 정결한 제물처럼 자신을 순수하고 온전히 바치는 행위를 의미한다(참조, 고전15:33; 살후3:14).
- (4) 둘째,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일군은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자들이다. 여기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린다는 뜻이다(참조, 고후13:11).

- (5)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서도 모세나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도 있었고 사울이나 요나처럼 불순종한 일꾼들도 있었다(참조, 행13:22).
- (6) 세째,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일꾼은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는 자들이다. 이 말은 참된 일꾼은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라는 의미이다.
- (7)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다(참조, 엡4:1; 빌1:27; 골1:10; 살전2:12).

17. ㉠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인가? (22, 23절)

- ㉠ (1)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란 불건전한 성적 정욕과 더불어 지나친 식욕, 지식욕, 명예욕 등을 의미한다.
- (2) 또 바울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다(참조, 롬10:12-14; 고전1:2).
- (3) 여기서 ‘깨끗한 마음’은 ‘불의에서 떠나고’(19절), ‘자신을 깨끗하게 한’(21절) 사람들의 내면적인 인격을 뜻한다.
- (4) 또한 ‘의’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마음의 상태를,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겸손하고 전적인 신뢰를, ‘사랑’은 원수까지도 자비의 대상으로 삼는 형제에 대한 깊은 애정을, ‘화평’은 모든 성도들간의 평화롭고 완전한 상호 이해를 의미한다(참조, 마5:9; 요13:34; 롬12:18).
- (5)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권면하고 있다. 이 권면은 목회 서신에 반복 강조되어 있는 것으로, 진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지적 수준을 자랑하는 변론은 이단자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참조, 2:16,23; 4:4; 딤후전1:4; 4:7; 6:4; 딤후전3:9).
- (6) 그러므로 그들이 전파하고 펼치는 변론의 결국은 한 공동체의 분란과 불건전한 사상의 전파일 뿐이었다.
- (7) 이처럼 주의 종으로 복음 사역을 담당하려 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바른 교훈으로 교육을 받아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6:17; 12:2; 엡5:1; 빌3:17).

18. ㉠ 주의 종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24-2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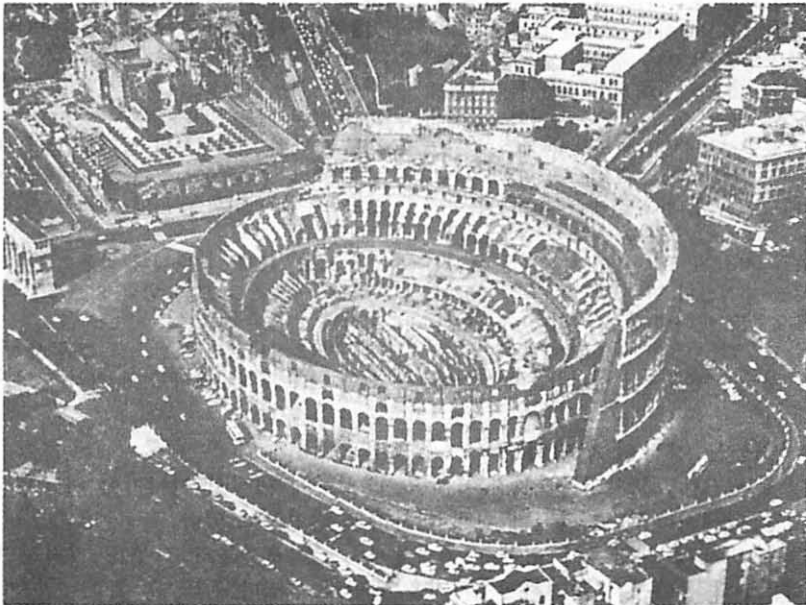
- ㉠ (1) 첫째,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아야 한다. 다툼은 분열과 불화를 초래하므로 주의 종된 자들은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투어서는 안 된다(참조, 마5:24; 고후5:18,19; 살전5:13).
- (2) 둘째,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해야 한다. 주께서는 친히 자신을 가리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마11:29)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참조, 마5:5).
- (3) 세째,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즉 복음의 사역자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참조, 사42:1-4; 마23:34).
- (4) 네째, 주의 종은 참아야 한다. 여기서 ‘참으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벡시카론>은 ‘원수와 악인’에 대하여 잘 인내한다는 의미로 성경 중 본귀절에만 나오는 단어이다(참조, 히12:1-3; 약1:12; 벰전2:20-25).
- (5) 다섯째, 주의 종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한다. ‘거역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안티디아티데메누스>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말로 여기서는 이단자(Huther) 또는 신앙이 미순한 자(Ellcott)를 가리킨다(참조, 롬12:21; 벰전2:21-25).

이들에 대해 적절한 권면과 징계를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꾸짖기 위함 보다는 그들이 그 권면과 징계를 받고 자신의 잘못된 과오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6) 상기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뜻하심에 순복하고 말씀에 입각한 가르침을 펼 때(참조, 3:16) 잘못된 성도들도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14:6; 딤후전2:4; 벧후3:9).

화보자료

로마의 원형 경기장 (Colosseum). A. D. 80년 디도 (Titus, A. D. 79-81)에 의해 완성된 이 경기장은 약 45,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건축물이다.



오늘날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에도 경기하는 자가 경기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었다. 바울은 분침에서 예수의 일군인 성도들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5절) 이는 곧 성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명을 좇아 생활해야 함을 의미한다 (참조, 고전9:23-27).

제 3 장 말세에 나타날 악에 대한 예언과 성도의 고난

단락구분 1-5 말세에 나타날 일반적인 죄악 / 6-9 거짓 교사와 이단자들의 범죄 / 10-12 핍박을 견디라 / 13-14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 15-17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라

1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2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궤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4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6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7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8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린 자들이라

9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10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12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13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네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앞장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의 자격 및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울은 본장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 (2) 바울은 말세에 사람들이 범하는 죄악들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들의 행위로부터 돌아서서 경건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
- (3) 또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실례로 들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있을 것인데, 이 고난을 잘 견디어 내라고 당부하고 있다.
- (4)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으로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늘 성경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배운 바를 지켜 나가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
- (5) 본장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는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요8:32;16:13;17:17;딤후2:4).

2. ㉠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말세에'란 말은 이곳 외에 행2:17과 약5:3에 나오는 것으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직전의 때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다(참조, 창49:1; 민24:14; 사2:2; 렘23:20; 겔38:16; 단2:28).
- (2)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말은, 넓은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가리키며(히9:26; 벰전1:20) 좁은 의미로는 주의 재림 직전을(살후2:2-4; 딤후4:1) 가리키는 말로 변했다.
- (3) 그런데 여기서의 '말세에'는 교회 시대, 즉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미래에 올 어느 날보다는 '현재'를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참조, 행2:17; 히1:2).
- (4) 또 '고통하는 때'는 어렵고 괴로운 때를 가리키는 말로 모든 죄악이 극성(極盛)을 부리는 시기이다.
- (5) 성경은 고통의 시기를 거친 다음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종국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이 '고통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다(참조, 마24:1-51).
- (6) 이처럼 말세, 즉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이 불경건하게 되고 또한 온갖 죄악이 범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녀로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5:14-16; 요3:19-21; 8:12; 요일2:8-10).

3. ㉠ 말세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죄악은 무엇인가? (2-5절)

- ㉠ (1) 본귀절은 말세 사람들의 타락상 19항목을 열거했는데 그 구체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다.
(2)

분류	죄목	내용	참조 귀절
이기적인 죄	자기를 사랑함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자	눅 14:26
	돈을 사랑함	모든 악의 근원이 됨	딤후 6:10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	자궁(自矜)함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	롬 1:30
	교만함	남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고 자신을 드러냄	눅 1:51
	체방함	언어 생활에서 하나님과 이웃의 권위를 무시함	딤후 1:3
	부모를 거역함	불순종은 하나님과 부모의 권위를 동시에 깔보는 행위임	신 21:8; 엡 6:1
	감사치 않음	감사는 모든 덕의 기초임	눅 6:35
	거룩치 않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발견치 못하고 행함	딤후 1:9
	무정함	죽어 버린 인간애와 양심	롬 1:31
	원통함을 풀지 않음	화해할 여지가 없는 강박한 자	약 3:14
	참소(讒訴)함	거짓되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일삼음	살전 2:18
	절제치 못함	자신의 악한 본성을 제어하지 못함	약 1:15
	사나움	포악한 동물적인 기질의 소유자	전 8:1
	선한 것을 싫어함	어두운 세력의 두드러진 특색	요 1:11
	배반하여 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저버림	요 13:21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죄	조급함	무엇이든지 생각 없이 서두름	행 19:36
	자고(自高)함	자신만을 알아 모든 권위를 부정함	딤후 3:6
	패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함	패락 지상주의자로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	요 3:19; 행 4:19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함	외형적이고 철저히 가식적이어서 곧 멸망에 이름	롬 2:20	

(3)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상기한 여러 가지 죄악(참조, 마15:19; 롬1:28-31; 갈5:19-21; 딤후전1:9,10)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로 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벰전1:20; 벰후3:3,11).

4. **㉠** 바울은 '외식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5절)

- ㉠** (1) 바울은 '외식하는 자'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다.
- (2) 여기서 경건(헬, 유세베이아)이란 거룩성 또는 믿음 그리고 신앙 생활의 대강(大綱)을 의미하며 '모양'(헬, 몰포시스)이란 외모, 또는 외형을 가리킨다. 그리고 '능력'(헬, 뒤나미스)은 특별히 이적적인 힘, 권능, 풍부 등을 뜻하며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참조, 롬1:16)과 그분의 경륜(참조, 고전1:18) 등을 가리킬 때 사용된 용어이다.
- (3) 결국 본질은 외적인 모습으로는 진실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자신의 구원 문제마저도 부정하는 것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참조, 마23:1-36).
- (4) 한편 야고보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약1:27)고 정의하고 있다.
- (5)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제물에 대해서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義)와 인(仁)과 신(信)은 버렸도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외식의 죄악을 지적하셨다(마23:23).
- (6) 여기서 우리는 참된 경건은 외적인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또 형제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참조, 사1:11-17; 호6:6).
- (7) 그러므로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세태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나 자신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외식자가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참조, 갈6:1; 빌2:4).
- (8)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경건을 소유한 자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돌보며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9:24; 호6:6; 12:6; 스7:9; 마12:7).

5. **㉠**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자와 어리석은 여자에 대해 설명하라 (6, 7절).

- ㉠** (1)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자'는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일부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취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도덕을 무시하고 성적인 방종에 빠졌었다(참조, 서론 ㉠ 10).
- (2) '어리석은 여자'에 해당하는 헬라이어 <귀나리카리아>는 '작은 여자'란 뜻으로 이는 지조나 도덕적 정절 의식이 별로 없고 매사에 자기 결단이 약한 자를 가리킨다. 특히 여기서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한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Alford).
- (3) 한편 거짓 교사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주력하는데 그 이유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연약하고 또 쉽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지와 양심을 맹목적으로 내맡기기 때문이다(참조, 고후10:5; 엡4:3).
- (4) 이처럼 거짓 교사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침입하여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 성적인 방종에 빠뜨렸는데 당시 헬라인 가정에서는 여자들이 새로운 학문과 예술을 배우기 위해서 학자나 예술가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일이 많았다.
- (5) 이와 같이 당시의 어리석은 여자들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에 대한 욕구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다가 결국 영지주의 이단 사상의 포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탈선까지 하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지경으로 떨어졌었다(참조, 행17:21).

- (6) 그리하여 이 여자들은 온갖 종류의 육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 무저항적으로 이끌리게 되어 결국은 멸망에 이르렀다(참조, 마4:19; 롬1:24; 갈5:24; 골3:5; 벧전1:14).
- (7)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이단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한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점을 깊이 명심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만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성취해야 할 것이다(참조, 골3:16).

6. ㉠ 8절에 기록된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첫째,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즉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들 영지주의 이단들은 바울과 디모데가 전한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였다(참조, 행13:8; 유1:4).
- (2) 둘째,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다. 여기서 '부패한'에 해당하는 헬리어 <카테프 타르메나>는 벧후2:12에서처럼 '멸망하는' 또는 '완전히 파괴된'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3) 도덕적 의미로 볼 때 이 말은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완전히 사라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딤후6:5).
- (4) 셋째, 그들은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다. 이 말은 바울의 서신에 여러 번 나오지만 묵회 서신에서는 이곳과 딤후1:16에만 나온다.
- (5) 즉 그들은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거짓된 사상을 가르침으로 믿음에 관하여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 마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쓸모없는 자들로 판명되어 내어 버리운 자들이다(참조, 행8:21).
- (6) 비록 이단들이 믿음을 가장하고 자신들을 광명의 천사로 꾸밀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그들이 맺는 열매를 보고 이러한 이단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참조, 마7:16-18; 엡5:9).
- (7)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부지중(不知中)이라도 진리를 대적하고 믿음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12:2; 엡5:17; 살전5:17).

7. ㉠ '안네와 암브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라(8절).

- ㉠ (1) '안네와 암브레'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유대 문헌이나 이방 문헌 그리고 초대 기독교 문헌에는 자주 나온다(경의서, 요나단의 탈굼).
- (2) 이들은 출애굽 당시 모세를 대적한 마술사들로 그들에 관한 간접적인 언급은 출7:11; 22:22에 나온다.
- (3) 그런데 바울이 이들 두 사람의 이름을 인용한 경로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다.
- (4) 여하튼 그들은 바로의 마술사들로 모세가 애굽 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10가지 이적을 행할 때 이에 대항하여 마술을 행하였던 것 같다(참조, 출7:10-20; 8:7,18,19).
- (5)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무시한 처사로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8. ㉠ 거짓 교사들은 어떠한 결과를 당하게 되는가? (9절)

- ㉠ (1) '안네와 암브레'는 처음에는 모세가 행한 기적과 거의 비슷한 기적을 행했으나(출7:11,22; 8:7) 중간에 가서는 마술이 막혀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고(출8:18) 결국에는 그들 자신도 애굽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받아 고통을 당했다(출9:11).
- (2) 이와 같이 이단자들과 거짓 교사들도 처음에는 그들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 같고 교회 자체를 자기들의 의도대로 파괴시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다(참조, 행20:9; 고후11:13-15).
- (3)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타락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도는 언제나 실패하고 만다(참조, 막13:22).

- (4) 오히려 그들은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멸망하여 저들의 어리석음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야 말 것이다(참조, 고후5:10).
- (5) 이처럼 비록 악이 어느 정도까지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나 끝까지 나가지는 못하고 악인의 모든 시도는 결국 그들 자신을 해치는 어리석은 결과로 끝나게 된다(참조, 합1:2-4).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악이 선을 누르고 불의가 정의를 유린(蹂躪)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올 궁극적 승리를 바라보면서 진리를 지키며 인내해 나가야 할 것이다(참조, 합3:16-18).

9. ㉠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 준 모범은 무엇인가? (10, 11절)

㉠ (1) 바울은 자신의 모범을 아래 도표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디모데가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사람들을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다.

모범의종류	의 미	참조 구절
교 훈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친 복음의 바른 진리를 의미함	행 17:2, 3
행 실	말로써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몸소 실행함으로 언행 일치의 모범을 보여 줌	고전 9:23-27
의 향	그리스도를 뜻대로 삼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불타는 염원	빌 3:4
믿 음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 주실 것을 확신함	롬 8:38, 39
오래 참음	사람들이 대적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해 인내하며 온유, 겸손히 대함	살후 5:14
사 랑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순종함	살전 3:12
인 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 구원에 이룸	행 14:19-22
핍 박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	고후 4:9
고 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울 각오로 생활함	골 1:24

(2)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서도 고난을 견디며 사랑과 복음을 몸소 실천한 바울의 생애를 본받아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타인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롬14:8; 빌1:20).

10. ㉠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어떠한 일을 당했는가? (11절)

- ㉠ (1) 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전도하여 많은 개종자를 얻었으나 유대인의 핍박을 받아 이곳에서 추방되었다(참조, 행13:14-52).
- (2) 그런데 본질에 언급된 안디옥은 바울의 선교 출발지인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행13:1-3) 1차 전도 여행 때 들린 소아시아 반도 남방에 있는 비시디아 도(道)의 안디옥을 가리킨다(행13:14).
- (3)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선동하여 악감을 가지게 하고 바울 일행을 돌로 치려고 위협했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그곳에서 도피할 수밖에 없었다(참조, 행14:1-7).
- (4) 그리고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으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곳에서 앓은뱅이를 고치자 이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여 제사하려고 했으나 바울과 바나바가 이를 제지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곳이다(참조, 행14:8-18).
- (5) 그러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곳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 거의 죽게 만든 후 성밖에 내다 버렸다. 그러나 그는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행14:19-22)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가 성도들을 격려했다.
- (6) 여기서 바울은 매우 가혹하고 견디기 힘든 핍박이 순간순간 닥쳐 왔지만 그가 복음에

굳게 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자신을 건져 주셨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참조, 시27:1-5; 사43:2; 나1:7).

(7)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해야 한다(참조, 고후4:8-10).

11.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12절)

- ㉠ (1) 사도 바울은 경건하게 살려 하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 (2)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은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참조, 마10:38; 눅9:23; 고후1:5; 빌1:29).
- (3) 더우기 어두움과 비진리로 대변되는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융합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불의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를 전파하며 예수의 말씀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한다(참조, 행14:22).
- (4) 또 경건한 생활에 대한 강조가 바울의 목회 서신에 여러 번 나오는데(3:5; 딤후2:2; 3:16; 4:7,8; 5:4; 6:3-6; 딤후2:12) 경건하게 사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그분의 은혜로 주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참조, 요15:4,5; 갈2:20; 빌3:10).
- (5)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은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마5:10-12; 요15:17-20; 살전3:4).
- (6)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에 만연해 있는 기복 신앙 때문에 성도들 중에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잘되고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게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 (7)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으며 이 고난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참조, 요15:20; 행14:22; 갈6:9).

12. ㉠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

- ㉠ (1) 본질의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과 정반대되는 자들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서로 배타적인 두 개의 다른 그룹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그룹으로 악할 뿐만 아니라 속이기까지 하는 자들을 가리킨다(참조, 고전5:13).
- (2) 이들은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나아가며 경건하게 살려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힌다(참조, 벰전5:8).
- (3) 또한 이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즉 이들은 단순히 자신의 사악함을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악함을 온 공동체와 사회 안에 전염시켜 결국 큰 불신을 조장하기에 이른다(참조, 롬6:23; 계22:11).
- (4) 그런데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는 승리하고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이 저지른 악과 거짓 때문에 멸망하고야 만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된 말과 행실을 버리고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잠3:7; 암5:14; 롬12:21; 고후5:10; 살전5:22).
- (5) 또한 성도들은 성경 말씀이나 주의 종들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견책에 귀를 막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여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참조, 삼상15:22; 마13:15; 막4:9; 갈5:22; 6:9).

13. ㉠ 14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은 무엇인가?

- A** (1) 바울은 전절에서 악인들이 더욱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후 이제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 (2) 여기서 ‘배우고’에 해당되는 대상은 이단의 거짓된 교리에 반대되는 복음의 바른 진리를 가리킨다.
- (3) 그런데 디모데는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들을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고(1:5)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진리는 바울로부터 배웠다(참조, 행14:12).
- (4) 한편 ‘확신한 일’에서 ‘확신’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스토테스>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말로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신념’을 뜻한다.
- (5) 이는 성도들이 단순히 진리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오히려 배운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생활을 변화시키는 확실한 신념으로 승화시키게 될 때 그 배움은 바람직하고 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약2:26;4:17).
- (6) 그리고 ‘거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네>는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이다. 당시 성도들 중에서는 주 예수와 더불어 나눈 첫사랑의 감격(참조, 계2:4)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옛날에 거하던 불의와 이단의 가르침에 빠지는 경우가 흔했다. 특별히 유대 출신 기독교 개종자들은 자신들의 자랑인 율법을 숭앙하기도 했으며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은 영지주의(Gnosticism)의 유혹에 넘어가기 일쑤였다.
- (7)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고한 신념이 없는 자들처럼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배우고 확신한 복음의 진리에 계속 충성스러이 머물러 있으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 (8)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통해서나 교회의 사역자들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해 점차 혼탁해져 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참조, 마5:13-16).

14. **㉠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라 (15절).**

- A** (1) 유대인의 교육은 그 원리, 내용,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해서 가르쳤다(참조, 창18:19;출12:26,27;신6:7,9;11:19;시 119:15,16,99;사 38:19;엡 6:4).
- (2) 따라서 교육의 중심이 되는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잠1:7;9:10)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 (3) 또 유대인의 자녀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양육에 부모가 모두 참여함으로써 가정을 중심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자녀에 대한 교육은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의 하나이다.
- (4) 이에 대해 자녀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청종하고 어머니의 교훈을 거부하지 말고 그 부모를 순복하며 공경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참조, 출21:15-17;잠1:8;6:20;엡6:1-3).
- (5)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그 자녀가 아직 매우 어렸을 때 시작했으며 그들은 자녀에게 본질적으로 죄가 있으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참조, 삼상2:11-19;잠 23:13,14).
- (6) 또 무엇보다도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를 사랑했으며 그들을 사랑의 정신으로 양육했다. 비록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를 대신해서 많은 고통을 내렸지만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선택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참조, 수24:15;시103:13).
- (7)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아주 실제적이었으며 암기하는 것을 중요시했지만 자녀들이

암기 공포증에 걸릴 정도로는 괴롭히지 않았다(참조, 사10:19;28:10).

- (8) 어릴 때는 자녀 교육이 부모들의 과업이요 책임이지만 그들이 성장하면서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 특별 가정 교사, 박사들 그리고 랍비들 모두가 젊은이들의 교육에 참여했다(참조, 대상27:32;사49:23).
- (9) 상기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의 가정 중심의 자녀 교육은 실제로 잘 실시되고 있었고 이런 교육을 통해 그들이 민족의 영적 특수성을 잃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끼칠 복의 근원이 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시119:105).

15. ◎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15-17절)

- (A) (1)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만이 줄 수 있는 것이다(참조, 시19:7; 롬11:11; 빌1:19).
- (2)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며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리킨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참조, 롬10:17; 유1:20).
- (3) 또 '지혜'는 인간에게서 비롯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계시에 의한 지혜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이다(참조, 롬11:11; 빌2:12). 이런 측면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 할 수 있다.
- (4)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고 온전하여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온전케'(헬, 알티오스)란 말은 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용되는 말로서 모든 것이 제 위치에 있으며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
- (5) 즉 성경은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인격을 온전하게 구비시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은 성경을 떠난 지식이나 교양은 사람의 인격을 참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참조, 시19:7; 119:98).
- (6) 이처럼 성경만이 인간에게 구원과 선한 삶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더욱 가까이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한다(참조, 롬12:2; 계22:7).
- (7)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지 않고선 자신이 온전해질 수 없으며, 그가 맡은 성도들의 영혼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경 연구를 생활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참조, 시1:1-3; 119:105).

16. ◎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 (16절)

- (A) (1)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 말은 성경의 절대 영감설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된다(참조, 벧후1:21).
- (2)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이라는 말은 성경 중에 여기에만 나오는 것으로 모든 성경은 그 기원과 내용이 하나님의 감동인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시사해 준다(참조, 사8:20; 눅24:44; 롬4:23; 요일4:6).
- (3) 즉 성령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사용해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없으며 인간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것이다(참조, 벧후1:21).
- (4)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성경 기록자들의 개성을 억압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개성을 최대화시켰다(참조, 요14:26).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다양한 문체와 언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5) 다시 말해 성령의 영감은 유기적이지, 기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원저자이신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전달하는 데 가장 적합한 언어와 문체를 인간 저자의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셨던 것이다.
- (6) 따라서 모든 성경 말씀은 인간 저자의 말이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참조, 출20:1;삼하23:2;말4:4;마1:22;고전2:4-10). 우리가 성경의 이러한 권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일매일이 올바른 걸음으로 채워질 것이다(참조, 시109:105).

17. **㉠** 성경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유익은 무엇인가? (16, 17절)

- ㉠ (1) 첫째, 모든 성경은 성도들을 교훈하는 데 유익하다. ‘교훈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딤후5:17).
- (2) 둘째, 성경은 사람들을 책망하는 데 유익하다. ‘책망하는’ 것은 잘못된 교리나 행동의 오류를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고 이단자들의 거짓을 밝혀 내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요6:8-11;엡5:18;딤후2:15).
- (3) 셋째, 성경은 사람들을 바르게 하는 데 유익하다. 책망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 것이라면 ‘바르게 함’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것으로 성도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길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단12:3;요21:15-17).
- (4) 넷째, 성경은 성도들을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 이 말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딤후2:11-14).
- (5) 또 여기에는 디모데를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이 그의 사명, 즉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참조, 2:22).
- (6) 이상과 같이 성경 말씀은 자신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데도 절대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의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데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은 말씀 속에서 복음의 진리와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찾는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시119:105;요8:31,36).

본장의 요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6절).



제 4 장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

단락구분 1-5 항상 말씀 전파에 힘쓰라 / 6-8 사도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 / 9-13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여 디모데가 자기에게 속히 올 것을 당부하다 / 14-16 대적자들을 주의하라고 권면하다 / 17-18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복음 / 19-22 바울이 성도들에게 문안하다

1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3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4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5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6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

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9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 테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1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3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겹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져오기에 쓴 것을 가져오라

14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15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16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18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9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밋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20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21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테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22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1. ㉠ 본장의 중심되는 주제는 무엇인가?

㉠ (1)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 하는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고 강조한 전장에 이어 본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최후의 교훈이 나타나고 있다.

(2)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을 위하여 디모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통하는 시기가 되어 사람들이 전전한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오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다(참조, 막16:15; 빌1:15).

(3) 또한 사람들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을지라도 모든 일에 근신하여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4)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전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자신이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믿는 우리들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5:14-16; 28:18-20).

2. **㉠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인가? (1, 2절)**

- ㉠** (1)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다.
- (2) 여기서 ‘전파하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케루소>은 ‘공중 앞에서 선포하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설교보다 그 뜻이 강하다.
- (3) 아물든 반포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여야 하는데 그 말씀은 전조하지 않고 생명력이 있으며 시기 적절한 것이다(참조, 히4:12).
- (4)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에 대한 참된 메시지며 모든 거짓과는 대조를 이룬다(참조, 눅11:28; 행20:32; 엡1:13).
- (5) 그러므로 디모데를 비롯한 모든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 즉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공공연하고 공명 정대한 선포는 이단과 그 종들에 의해서 남몰래 행해지는 침투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룬다(참조, 막1:14; 16:15; 롬10:15; 살전2:9).
- (6) 한편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해야 할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직접 전파하거나 사랑을 실천함으로 참된 전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참조, 롬6:13; 요일4:7-11).

3. **㉠ 바울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가? (1절)**

- ㉠** (1)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의 재림과 그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두고 디모데에게 가장 엄숙한 명령을 하고 있다.
- (2) 여기서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세상 종말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으로 묘사되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그분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어 있던 살아서 그분을 맞이하든 그분 앞에서 결산 보고를 해야만 한다(참조, 마25:31-46; 고전15:51,52; 계20:11-15).
- (3)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과 그것의 임박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곧 재림하시리라는 사상은 바울 서신에서 자주 발견되어진다(참조, 롬2:16; 고전4:5; 고후4:5; 살후1:7-9).
- (4) 더군다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것과 그의 위엄 있는 왕권, 즉 그의 나라를 두고서 디모데에게 엄명하고 있다(참조, 말4:2; 살후2:8; 딤후6:14).
- (5)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의 재림과 그의 나라(왕권)는 불변하는 진리이며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세상 끝날에 필연적으로 성취될 사항이다. 이러한 권위와 확실성 이상의 개념이나 실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에 바울은 이러한 권위를 힘입어 복음 전파 사역을 명하였던 것이다.
- (6) 만일 디모데가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자랑스럽게 영광에 참여케 될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그렇지 못할 것이다(참조, 살전4:13-18; 계3:21; 22:5).
- (7)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명령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일군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어진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참조, 3:13; 살전4:13-18).

4. **㉠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파해야 하는가? (2절)**

- ㉠** (1) 첫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한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세월을 아껴 기회를 선용해야만 한다(참조, 엡5:16).

- (2) 둘째, 사람들을 경책해야 한다. 여기서 '경책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엘렌코>는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깨닫게 한다는 의미이다. 성도들은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마음속 깊이 사무치게 자각시켜야 한다(참조, 요16:8).
- (3) 셋째,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여기서 '경계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비난하다' 또는 '벌'로도 번역되는 말이다. 성도들은 죄인을 경책하는 과정에서 죄인을 호되게 책망해야 하며 결코 부드럽게 대해서는 안 된다(참조, 고후2:6).
- (4) 넷째, 사람들을 권해야 한다. '권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라칼레오>는 '용기를 북돋우다' 또는 '위로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성도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자를 책망할 때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참조, 고전5:1-8, 13).
- (5) 그런데 이러한 명령들은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행해야 하는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죄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참조, 딤편1:16)에서 비롯된 성도들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고난을 견뎌 내는 상태가 아니라 희망 찬 앞날을 위해 죄인들을 '가르치는' 일과 동반해야 하는 적극적인 상태이다.
- (6) 이같이 오래 참음은 기독교인의 덕인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다(참조, 롬2:4; 고후2:5-11).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복음의 열매가 바로 열리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조급해 하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면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한다(참조, 롬8:28; 살전2:7-12).

5. ㉠ 바울은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3, 4절)

- ㉠ (1) 첫째,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의미한다(참조, 딤편1:10; 6:3; 딤편1:9).
- (2) 역사상의 모든 주기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거부한 때가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더 심화되어 말세가 되면 그들은 진리를 듣거나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 (3) 둘째, 귀가 가려워서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 여기서 '귀가 가려워서'란 표현은 신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말로 귀를 즐겁게 하고 자신의 더러운 본성을 충족시켜 줄 만한 솔깃한 정보들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자세를 가리킨다(참조, 렘5:31; 겔33:32).
- (4) 그들은 자기들의 헛된 망상 또는 그릇된 욕심을 만족시켜 줄 스승들을 열망하여 찾으며 건전한 진리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좀 색다른 것, 감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둔다.
- (5) 셋째, 사람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게 된다. 즉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가 죄와 형벌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즐긴다(참조, 3:15-17; 뱀후1:16).
- (6)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는 망령된 신화들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를 의미하는데 이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서 주로 발견할 수 있다(참조, 딤편1:4-7; 4:7; 딤편1:14).
- (7) 그런데 시대를 막론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귀를 간지럽게 해주기를 좋아하는 스승들은 언제나 있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부패한 양심과 귀를 가진 자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명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하며 부패한 본성을 억제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8:32; 딤편1:6).
- (8) 뿐만 아니라 주의 사역자들도 때론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이야기를 해주기 쉬운데 이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성도들에게 복음의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행21:8;고전1:17;엡4:11).

6. **㉠**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주의 종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5절)

- ㉠ (1) 첫째, 모든 일에 근신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여기서 ‘근신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네페>는 ‘정신을 차리다’란 뜻이었으나 신약 성경에서는 말의 자제(自制) 또는 침착함 등을 의미한다.
- (2) 즉 근신하는 사람은 침착하고 전실하며 말을 절제하여 감정적이거나 감각적인 것에 도취되지 않고 진리를 지켜 나가는 자들을 의미한다(참조, 살전5:6-8;벧전4:7).
- (3) 둘째, 주의 종들은 고난을 감수해야만 한다. 참된 주의 종들은 세상의 악한 권력이나 거짓된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견디어 내야만 한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모범이 되셨으며 또한 오늘날 우리의 고난에 동참자가 되신다(참조, 3:12;마7:13,14;16:24).
- (4) 셋째, 주의 종은 전도인의 일을 해야 한다. 주의 종들은 자신이 전도인이 아니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회자도 전도인인 것을 명심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야 한다(참조, 롬1:14;고전9:16).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기도 하다(참조, 마28:18-20).
- (5) 넷째, 주의 종은 직무를 다해야 한다. 여기서 ‘직무’는 설교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을 의미하며 ‘다하라’는 말은 끝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의미이다.
- (6) 그러므로 주의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을 게을리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충성되이 수행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행5:41;고전4:2).

7. **㉠**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6절)

- ㉠ (1)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라고 말하고 있다.
- (2) 여기서 ‘관제’(灌祭)란 포도주 등으로,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에 부는 일종의 전제(奠祭)를 의미한다(참조, 빌2:17).
- (3)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견하고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하여 산 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는 사실을 밝힌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참조, 민15:5;28:7;롬12:1).
- (4) 또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왔도다’에서 ‘나의 떠날 기약’은 바울의 생명이 이 땅 위에서 끝나는 날을 의미하며, ‘가까왔도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멀지 않다는 말보다는 이제 순교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뜻이다(참조, 행27:12;빌1:23).
- (5) 이처럼 바울은 주 예수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촛불처럼 태우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불꽃이 팔랑이듯이 곧 꺼져 갈 자신의 운명에 대해 다급해 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초연한 자세로 그 모든 일이 이뤄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참조, 고후5:1;살전4:14).
- (6) 마치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가 자신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각오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참조, 행7:54-60).
- (7)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일상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산 제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12:1;고전15:16;갈6:6;살전1:6).

8. **㉠** 바울은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7절)

- Ⓐ (1)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고 있다(2:4).
- (2)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선한 싸움'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는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풍물로 꼽힐 수 있는 운동 경기를 연상케 한다(참조, 고전9:24,25; 빌3:12,14; 히12:1-3).
- (3) 즉 바울은 그의 신앙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것에 대해 승리감과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 (4) 또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수행했다는 뜻이다(참조, 행20:21; 고전9:24; 빌3:14).
- (5)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다. 여기서 '믿음'이란 바울이 확신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등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울 자신이 복음 전파 사역을 충성스럽게 전개하면서 자신의 개인 경전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말이다
- (6) 즉 바울은 인생의 경기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잘 달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모든 약속들을 확신하였다(참조, 갈2:16; 살후2:13; 딤펴6:12).
- (7) 간혹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복음 전도나 타인에 대한 관심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의 믿음을 등한히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남을 전도하고 가르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참조, 고전9:22-24; 히11:6; 뵤전2:6).

9. Ⓢ 사도 바울이 장차 받을 상급은 무엇인가? (8절)

- Ⓐ (1) 바울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기로 되어 있다.
- (2)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행위로 일관했던 바울에게 주어 지는 의로운 일에 대한 보답(보상)을 가리킨다(참조, 고후5:10).
- (3)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의인들의 노고를 외면치 않으시고 현세에서든 내세에서든 반드시 그 노고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신다(참조, 마5:3-12; 딤펴6:12; 약1:12; 뵤전5:4; 계2:10).
- (4) 한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될 보상 또는 상급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전제해 놓은 일이다. 즉 상급(보상)은 구원 이후의 일로서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참조, 요5:29; 롬1:17).
- (5) 이 보상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재림의 때에 주어질 것으로서 바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참조, 1:12,18; 살후1:10).
- (6) 또한 이 면류관은 세상 면류관들과는 달리 썩지 않으며 영원한 것이다(참조, 고전9:25). 이런 사실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지를 가르쳐 준다. 즉 한 순간의 행위가 영원을 결정하기에 성도들은 더욱 경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 (7) 아뭏든 우리 성도들은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기쁨을 준비하고 신망을 기다리는 현명한 다섯 처녀들처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의 상급을 쌓아 가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참조, 계22:20).

10. Ⓢ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9-13절)

- Ⓐ (1) 첫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 위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했기 때문에 속히 오라고 말했다.
- (2) 둘째,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의 귀중성과 바울 자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갈 디모데에게

필요한 부탁과 교훈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올 것을 명한 것 같다.

- (3) 세째, 디모데로 하여금, 마가복음을 기록했으며 자신의 다락방을 공개하여 가정 교회를 설립했던 마가를 그에게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이다(참조, 행1:13-15;골4:10).
- (4) 사실 마가는 바울의 제 1차 전도 여행 때 그와 함께 하였으나 도중에 그 일을 포기하고 되돌아감으로 인해 바울과 좋지 못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 사건이 확산되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까지 소원(疏遠)하게 만들었다. 이런 관계는 몇 년간 계속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두 사람이었기에 다시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 활동하게 되었다(참조, 행13:13;15:36-40;골4:10).
- (5) 마지막으로 추위가 엄습해 오는 감옥에서 드로아에 두고 온 겔옷과 책, 양피지 문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그것들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오라고 했다.
- (6) 이처럼 로마의 외롭고 추운 투옥 생활 중에 있던 선교의 백전 노장, 바울은 가까이 해 줄 형제가 필요했으며 함께 기도하고 위로해 줄 동역자가 필요했다.
- (7)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동역자들과의 교제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진정한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외롭고 고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서로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가운데 참된 형제애를 나누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일3:13-18;4:7-12).

11. ㉠ '데마'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라(10절).

- ㉠ (1) 데마는 한때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돕던 조력자였다. 그는 바울이 첫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당시 바울과 같이 있을 정도로 바울에게 필요한 인물이었다(참조, 골4:14;몬1:24).
- (2) 또 바울이 로마에 2차로 투옥되었을 때도 데마가 로마에 있었고 일시적으로 바울에게 봉사했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 (3) A. D. 2세기 후반의 자료들(외경 바울행전 등)에 의하면 데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필요한 존재이기는 했으나 항상 불안과 불편을 제공하는 조력자였고 신앙적으로도 불완전한 자로 묘사되었다.
- (4) 한편 본절에 의하면 그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한다. 이는 그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에서 바울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마저 저버리고 세상에 속한 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의미 심장한 표현이다.
- (5)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리고 떠나 가 버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신앙 세계는 흑과 백이 분명해야 하며 중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된다(참조, 마7:22,23; 딤후전6:17).

12. ㉠ 외로운 투옥 생활 중에 있던 바울은 자기 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가 누구라고 편지했는가? (10-12절)

- ㉠ (1) 바울은 자기 주위에서 위로가 되어 주었던 데마,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는 모두 자기 곁을 떠나 갔고 오직 누가만 여전히 남아 자기와 더불어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편지했다.
- (2) 여기서 그레스게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프랑스 고을(Gaul) 지방에 가서 전도했다는 전설이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한편 디도가 바울 곁을 떠나 간 것은 세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바울이 이미 개척해 두었던

달마디아(참조, 롬15:19)로 파송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아시아 출신(행20:4)으로 바울의 조력자였던(행6:21;골4:7;딤후3:12) 두기고는 디모데가 로마로 오기로 되어 있으므로 디모데를 대신하여 에베소로 떠나 간 것 같다. 이들은 분명 데마와는 걸음을 달리한 신실한 주의 종들이었다.

- (3) 결국 바울 곁에 남아 있던 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 혼자밖에 없었다. 사실 누가는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행16:10) 바울과 더불어 활동했으며 아시아(행20:6), 예루살렘(행21:25) 등지에서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함께 복음을 전파했었다. 특별히 그는 바울이 가이사라 및 로마에서의 옥중 생활을 했을 때 바울의 조력자요, 위안자요, 편지 대필자로서 많은 애를 썼다(참조, 행24:23;28:16).
- (4) 이처럼 복음 사역자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고뇌와 외로움을 달래 주는 친구(동역자)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친구 이전에 필요한 것은 항상 우리와 더불어 계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일 것이다(참조, 고후1:3-6).

13. ㉠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에게 올 때 특별히 무엇을 가지고 오도록 부탁했는가? (13절)

- ㉠ (1)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걸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부탁했다.
- (2) 여기서 '가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드로아 지방의 신실한 성도 중 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 (3) 바울이 드로아를 방문해서 그곳에 자신의 걸옷을 남겨 둔 사실 역시도 정확한 시간과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바울이 제 1차 로마 투옥 이후에 그곳을 들렀을 때 더운 날씨 관계로 인해 가보의 집에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걸옷을 맡겨 둔 것으로 보인다.
- (4) 그런데 바울이 지금이야 비로소 그 옷을 원하게 된 것은 이제 곧 닥쳐올 겨울(21절)에 로마의 추운 감옥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 '걸옷'은 추위와 비를 막을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두터운 모포를 가리킨다.
- (5) 한편 '가죽 종이에 쓴 책'이란 양이나 송아지 등의 가죽으로 만들어 그 위에 문자를 기록했던 것으로서 보관하기에 용이한 일종의 두루마리를 가리킨다.
- (6) 많은 학자들(Alford, Bengel, White 등)은 두루마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본다.
- (7)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약해 있을 때 육체적인 것(걸옷)과 영적인 것(성경)을 동시에 필요로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8) 이처럼 인간은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동시에 느끼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한다든지 단 하나를 너무 절대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다.

14. ㉠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리 장색 알렉산더를 주의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4-16절)

- ㉠ (1)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많은 해(害)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말로 바울과 그 일행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구리 장색 알렉산더는 딤후전 1:20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동일 인물로서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자이며 그는 바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사람이었다.
- (3) 또한 바울이 그에게 입은 해는 개인적인 손해만을 의미하지 않고 복음 전체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가 바울을 적대했으니만큼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를 해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행6:10;13:8;롬9:19).
- (4)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알렉산더에게 직접 보복하지 않고 그 보복을 전적으로 주께 맡기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알렉산더가 행한 악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였다(참조, 신32:35;마25:31-46;요5:28,29;롬12:17-19;고

후11:15;벧전2:23;계2:23).

- (5) 여기서 우리는 원수를 직접 갚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바울의 신앙을 통해 성도의 참된 인내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할 능력이 없는 존재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참조, 시62:12;잠24:12;롬2:6;계20:13).

15. ㉠ ‘내가 처음 변명할 때’란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16절)

- ㉠ (1) 이것은 바울이 첫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행 28:30).
- (2) 여기서 ‘변명’(헬, 아폴로기아)이란 말은 고소를 당하여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을 가리키는 법정 용어이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투옥되었을 때는 자기를 위해 변호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참조, 10절;1:15).
- (3) 사실 인간은 자기가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남으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하게 요구되어진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감옥 생활을 하기 전에는 많은 동역자와 친구들이 있었지만 투옥 생활하던 그에게는 그 친구들이 전혀 도움이 되어 주지 못했던 것이다.
- (4)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작정했다. 즉 바울은 그들의 비겁함과 몰인정함을 비난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 (5) 그가 이렇게까지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단지 연민과 동정으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식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그는 이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위해 죽음과 삶을 맞이한 것이다(참조, 갈2:20).
- (6) 한편 오늘날에도 현실의 어려움, 특히 친구와 동료 신앙인의 배신과 술수로 마음 아파하는 현대의 사도 바울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만일 자신이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바울처럼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기 보다는 살아 제서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히12:2)

16. ㉠ 주께서 환난 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강건히 붙들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17, 18절)

- ㉠ (1) 본귀절에 나오는 사건은 바울의 1차 투옥 때 일어난 것으로(벧4:13) 이때에는 단 한 사람도 바울을 변호하는 증인으로 나서려 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 그를 떠나 버렸으나 주께서는 끝까지 그와 함께 계셨다(참조, 행9:22;엡6:10).
- (2) 또한 주께서는 1차 투옥 때 곁에 제서서 능력 있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형을 면하고 감옥에서 풀려 나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상에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참조, 롬15:24,28).
- (3) 즉 주께서는 바울을 구원하여 더 많은 전도 여행을 하게 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도록 하셨던 것이다.
- (4) 다음으로 주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신 것은 바울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내어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
- (5) 바울은 옛날 자신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과 또한 내일에도 지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 더우기 그는 천국의 영광도 체험하게 될 것을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었다(참조, 살전1:10).
- (6)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하는 신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참조, 마10:33;눅9:23).

17. ㉠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주께서 직접 도우신 경우에 대해 서술하라 (17, 18절).

- ㉠ (1) 바울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으며 그 일로 인해 친구들이

그를 버리고 떠났을 때에도 주께서 곁에 계셔서 힘 주시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 신약 성경 중에는 이러한 기록이 많이 나온다.

- (2) 첫번째로 바울이 경험한 것은 고린도에서의 일이다. 즉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들러 회당에서 전도한 결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 (3)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여 바울을 그 성중에서 쫓아내려 하여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밤에 환상 중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안심하고 전도하라고 격려하셨다. 이에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을 전도하여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다(참조, 행18:9,10).
- (4) 두번째 경우는 예루살렘의 로마군 병영에서의 일이다. 즉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죽이려 하여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가 자기의 병영에 바울을 보호하고 있을 때 주께서 밤중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하셨다(참조, 행23:11).
- (5) 세번째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던 배가 파선되었을 때의 일로서 환상으로 주의 사자가 곁에 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 배에 탄 선원들과 상인과 로마 군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모두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참조, 행27:23,24).
- (6) 마지막으로 바울이 두번째 로마 옥중에 갇혀서 공판을 받을 때의 일로서 주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격려해 주셨다.
- (7) 여기서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니 우리 성도들도 주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삼상15:22; 마28:20).

18.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하여 살펴보라(19절).

- ㉠(1) 이 두 사람은 초대 교회 시대 뿐만 아니라 오고오는 세대에 가장 모범적인 가정상을 제시한 부부이다.
- (2) 이들은 장막 제조업을 하고 있었으며 바울과 동업할 정도로 바울과는 친밀한 관계였다(참조, 행18:1-3).
- (3) 특별히 이들은 바울의 전도 여행에 헌신적으로 동참하였으며 평일에는 그들의 주업인 장막 만드는 일을 바울과 더불어 하였으며 안식일에는 바울을 도와 복음 전파에 진력하였다.
- (4) 더 자세한 내용은 행 18장 ㉠3,21,22을 참조하라.
- (5) 여하튼 바울이 자신의 생애 말기에 기억해 둘 사람을 하나하나 꼽아 보는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이들 부부를 생각했다는 것은 이들 부부의 사랑과 협조가 얼마나 컸던가를 과히 짐작케 한다.
- (6) 오늘 교회가 세속화 되어 가고 성도 상호간에도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발견하기 드문 때를 맞아 평신도 헌신의 모범을 보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이들이 절실히 요청된다. 교회는 이런 자들을 바라기 전에 먼저 각자가 바로 이러한 헌신의 주인공이 되어야 마땅하다.

19. ㉠ 에라스도와 드로비모는 각각 어떤 인물인가? (20절)

- ㉠(1) 먼저 에라스도는 고린도 출신으로 디모데와 한 팀이 되어 바울의 전도 사역에 일익을 담당했던 자이다(참조, 행19장 ㉠14).
- (2) 그리고 드로비모는 에베소 출신으로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으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에베소 교인들이 헌금한 물질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한 자이기도 하다(참조, 행19:4; 21:29).
- (3) 그런데 그는 병으로 몹저 누워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고향 에베소에서 약 45km지점에 있는 고요한 항구 도시에서 요양을 한 것 같다.

- (4) 이처럼 복음 사역자들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직능을 수행하며 또한 각기 다른 체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다. 그들 중에는 복음 사역에 큰 장애가 될 만큼의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던 자도 있었다.
- (5)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복음 사역자라고 해서 아담 이래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통과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요즈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 중에는 위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려고 한다.
- (6) 우리의 육체는 분명히 불완전한 상태로 이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음 사역자가 불신자들보다 더 유리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불완전함을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참조, 약5:13-16).

20. **㉠**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언제까지 자기에게 당도할 것을 부탁했는가? (21절)

- ㉠** (1)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겨울 전에' 자기가 있는 곳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 왜냐하면 겨울 전에 그가 당도해야지만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겂옷을(13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지중해 전역에는 겨울 철(10월-4월)에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파도가 높았기 때문이다(참조, 행27장).
- (3) 더우기 그는 자신에게 닥쳐 올 인생의 겨울, 즉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참조, 6절) 자신이 사랑하던 디모데를 어서 빨리 만나고 싶었던 것이다.
- (4) 이제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골인 지점 앞에 선 숙련된 신앙 경기자의 입에서 '겨울' 이야기가 나오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9절)는 호소조의 말이 흘러 나온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5) 그러나 그의 이러한 호소와 당부는 인생의 실패를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최대한 선용하려는 삶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5절).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 보는 우리에게도 멀지 않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것이다(참조, 히9:27). 그 겨울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